

나라사랑대출 대부한도액 인상

주택구입·아파트 분양 등
인상된 유공자 대부한도액
3월 15일 대부부터 적용

보훈가족이 이용하는 나라사랑대출 한도액이 인상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불안에 직면한 보훈가족을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확대 지원하데 이어 지난달 15일부터 나라사랑대출의 한도액을 인상 지원키로 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는 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농어촌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신축 아파트 분양의 경우도 대도시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농어촌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대부금이 인상됐다.

주택개량과 농토구입의 경우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농토구입의 경우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조정됐다.

2021년도 나라사랑 대출의 상환조건은 주택구입(신축)과 아파트 분양의 경우 연이율 1.3%, 주택개량과 농토구입의 경우 연이율 2.3%로 종전과 동일하며, 인상된 나라사랑대출 대부한도는 신규대부부터 적용된다.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부모군분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수권 배우자이다.

대부종류별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mpva.go.kr) '예우보상→대부지원'을 참고하거나 또는 각 지방보훈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부한도액 인상이 보훈대상자들의 내 집 마련 등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른 대부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한도액 (현행 → 변경 후, 단위:만원)	상환조건 연이율(%)
주택구입(신축)	대도시(특별시·광역시) 6,000 → 8,000	1.3 %
	중소도시(시) 4,000 → 5,500	
	농어촌(군) 3,000 → 4,000	
아파트 분양	대도시(특별시·광역시) 6,000 → 8,000	1.3 %
	중소도시(시) 4,000 → 5,500	
	농어촌(군) 3,000 → 4,000	
주택개량	600 → 800	2.3 %
농토구입	2,500 → 3,000	2.3 %

3·8민주의거 기념식

<2면에서 이어짐>

이재 정 총리는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눈부시게 꽃피울 수 있는 건 푸른 들꽃처럼 솟아난 3·8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2018년이 돼서야 비로소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민주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똑바로 세우는데 무려 58년이나 걸렸다”면서 “한발의 청년들, 3·8정신이야말로 역사의 이름으로 남아야 할 내용이며 시대를 관통하는 가르침으로 기록돼야 하며, 정부도 3·8의 정신을 적극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8민주의거에 참가한 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의 학생대표가 애국가를 선창했다.

또 3·8민주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서 학우들을 독려하고 의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박제구씨가 60여 년 전 그날의 함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해 식장을 숙연하게 했다.

한편 3·8민주의거 기념식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2019년부터 첫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정부기념식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로 열렸다.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황 보훈처장과 지방 관서장
자택 직접 방문해 명패 부착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광주광역시 부모 집을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으며, 전국의 용사 유족에게는 지방보훈관서장 등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드렸다.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달 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4일 고 서정우 하사 유족의 자택①을 방문한데 이어, 9일에는 천안함 참전 장병 전준영 예비역 병장의 자택②, 10일에는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 유족의 자택③과 천안함 참전 장병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자택④, 12일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 유족의 자택⑤을 각각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다.